

2017년 2월 21일, 대정읍 하모리 이정자씨 댁, 문순덕(김은정정이슬) 조사.
강순화(여, 1935년생, 대정읍 가파리)

[조사자] 도체비 나온댄 헌 말은 안 들어봣디강?

[제보자] 하도 시대가 몹으난 안 헛주마는 그거는 하영 나왔주게. 하영 나와. 우리 하르방 살았이민 이제 여든넷인디 우리 하르방네 총각 때도 다 보고랜.

[조사자] 그걸 골아줍써

[제보자] 총각 때난 한밤중이 가당 예를 들영 하동에서 놀당 올라가당 보민 가운디 가파도 가운디 방애가 잇어났어. 그 방애에, 발을 쉼말추룩 그 방애 왕 닥닥닥 두드려동 동드레 돌았젠. 뒷날은 보민 사람 죽었저. 경 허연. 그런 헛불은 많이 낫주게.

[조사자] 헛불이랜 굽니까? 도체비랜 안 허고?

[제보자] 헛불이주게. 응. 도체비 봤젠 헛주게.

언치낙 헛불 나완. 그추룩 행 그 헛불이 동드레 돌안. 뒷날은 보민 영장났저. 굿인 거 덩기문 아마도 영장. 연날에 우리 이칩이. 이칩덜이라. 우리 하르방네 날 때 경 한 생이라. 우리 시어명도 골안게.

이 집이 아기 나고 동서녁집이 아기났젠 이제 우리 하르방 나고 여긴 다른 풀이 낫젠. 그때 바로 도체비가 다른 눈에 보였젠. 도체비가 이렇게 멍텅이 지고 행 그 때 아기어명이 어떻 허난 물 사다놓고 감감무중허난

“아휴, 도체비 덩겼저, 덩겼저.”

행게. 하도 돌아나간 침 주는 하르방들 다 훈 방애 뵈젠. 아기어명도 눕고 허 난 갈 때는 몸이 다 자려 불었젠. 몸이 다 자려 돌아난 사람이 연날은 문을 창문을 덕었다 열었다. 이렇게 가난 치메자락을 창문에 좁지난 돌아상 창문 올랑 그 치메 자락 영 튀언 가야. 가 붙어야 그 사람들이

“그 사람 돌아났저 없다. 이젠 좇자.”

그땐 아무것도 엇일 때난 헛불. 헛불로 행 찾아도 못 좇앙 뒷날은 보난 가파도 메구리 메는디 잇수다. 게염주리 매구리 메는데 그디 보선 한착 문드렸어랜. 시체 도 못 찾아 물에 강 셴. 그건 우리 어머니네가 다 굽디다. 도체비도 하영 나난 생.

[조사자] 경 허른 어디 가든 도체비 나는 자리난 멍심하란 말도 골아났수가?

[제보자] 멍심허라는 건 공동묘지서

“혼자 덩기지 말라.”

할머니, 어머니들이

“그딘 갈 때는 혼자 덩기지 마라.”

경 골아난.

• 핵심어 : 가파도, 도체비, 헛불, 영장